부부간의 대화와
성생활로 활력 찾기

- 편집실 -

성(性)이라는 한자가 지니는 의미는 마음(心)과 몸(生)이 합쳐져 있는 것이다. 성이 단순히 쾌락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몸과 마음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뜻이다. 부부간의 많은 대화와 성생활을 통해서 일상에서의 활력을 찾을 수 있다.

성생활을 통해서 활력 찾기

성(性)이라는 한자가 지니는 의미는 마음(心)과 몸(生)이 합쳐져 있음을 말한다. 즉 성이란 성적인 쾌락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또한 이성적 사고로만 생각하는 것도 아니라 몸과 마음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뜻이다.

활발한 성생활은 건강을 증진시켜 사망률을 떨어뜨리고 부부 간 유대도 강화시켜 준다고 호주의 유명 섹스요법 전문가가 말했다. 또한, 성생활이 일상생활에 활력소가 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말레이시아의 성의학 전문가인 로지 킹 박사는 "10년간 임상치료 결과 일주일에 2회 섹스하는 사람의 사망률은 한 달에 1회 하는 사람의 절반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일부 여성들은 남편과 성생활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많은 남성들은 자신의 아내가 이유 없이 성관계를 회피하여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소연한다.

이런 경우에는 맞벌이 부부에서 주로 발생하는데 주된 이유는 피곤해서가 첫 번째이다. 물론 맞벌이 여성들은 가사와 직장생활 등으로 몸이 열 개라도 모자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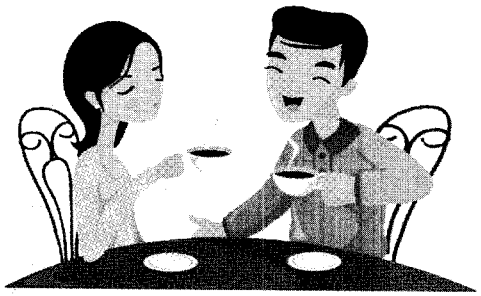
우리 나라 일부 맞벌이 남성들은 가사는 여성의 일로 생각하여 돌보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이 점은 반드시 고쳐야 할 점이다. 그러나 맞벌이 여성들은 피곤하다 하여 남편과 잠자리를 피하는 것은 본인이나 배우자를 위하여 바람직하지 못하다. 본인의 경우 표현되지 않고 잠재적으로 일상생활의 성취도를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대화 많을수록 더 친밀해져

하루 평균 2시간 이상 대화하는 부부일수록 성생활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사히신문이 발간하는 시사주간지 아에라 최신호(11월8일자)가 지난달 일본의 30~40대 유부녀 609명을 상대로 성생활 실태를 조사했다.

결혼한 일본 여성 10명 중 4명은 최근 한달 사이 남편과 단 한차례도 부부관계를 갖지 않았으며 이 중 절반은 이미 관계가 중단됐다고 답했다. 이미 관계가 중단됐다고 답한 경우를 제외한 497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부부관계는 월 평



균 2~3차례, 연 평균 20~30차례로 파악됐다.

자녀 1명을 둔 30대 전업주부의 경우 지난 9월 부부관계의 평균 횟수는 2.4차례로 연 평균 21.3차례에 달해 비전업주부의 월 1.4차례, 연 16.5차례를 웃돌았다. 관계가 '매우 즐겁다'는 비율은 전체의 8% 정도로 이들의 평균 횟수는 월 4차례, 연 45차례로 나타났다. 관계의 지속시간은 평균 41분30초이며 48%가 '언제나 오르가슴을 느낀다'고 답했다.

'전혀 즐겁지 않다'는 경우의 횟수는 연간 평균 5차례, 지속시간도 '매우 즐겁다'의 절반 정도에 그쳤다. 대부분 '오르가슴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 이유가 되었다.

또 '매우 즐겁다'고 답한 여성들은 하루 평균 2시간 이상 남편과 대화하는데 반해 '전혀 즐겁지 않다'는 쪽은 30분 정도에 그쳤다. 특히 '전혀 즐겁지 않다'의 39%는 불륜을 경험했다고 답하기도 했다. '매우 즐겁다'의 불륜 경험 비율은 8%로 훨씬 적었다.

이 조사를 통해 대화가 많을수록 관계가 더 친밀해지며 성생활도 자연스럽고 활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부부간의 많은 대화가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내의 욕구 이해하기

실제 여성이 원하는 관계 횟수는 한 달에 얼마나 될까. 남편과의 성관계 횟수에 만족하고 있을까. 한국성과학연구소가 기혼 여성을 대상으로 자신이 원하는 횟수와 실제 관계하고 있는 횟수의 차이를 조사했다.

그 결과 30~40대에서는 여성이 원하는 만큼 실제 섹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자신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성행위 횟수는 몇 번이냐고 물어본 결과 주 1회 이상 원한다가 20대 88%,30대 85%,40대 78%,50대 46%였다. 한데 최근 3개월간 남편과의 실제 성행위 빈도는 주 1회 이상 20대 79%,30대 65%,40대 58%,50대 31%이었다.

남성들이 나이를 먹으면서 아내의 욕구를 채워주기 어려워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는 나이에 따른 발기력의 저하와 성적 욕구의 감소가 있고, 한편으로는 부부간에 권태기도 한몫 할 것이다. 자녀가 커가면서 부부간에 갈등이 생기기도 한다. 문제는 일부 남성에서 부인이 자신이 해주는 성적 요소에 만족해 있는 줄 착각을 하고 있고 게다가 밖에서 다른 여성과 만남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현대사회는 모든 것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여성들의 의식도 과거 100년이 걸렸을 변화가 불과 수년에 이루어지고 있다. 남성이라는 기득권에 안주해 아내에게 맹목적인 추종만을 강요할 수 없는 시대이다. 남편은 과연 아내의 성욕구를 이해하고 있는지 못해준 것은 없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